

건축용 접착제가 해운대사고 키웠다!

인화성 약한 독일산 대신 국산 사용 ... 외벽에 불연재 사용 의무화 추진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해운대 아파트의 외장재로 인화성이 약한 독일산 대신 인화성이 강한 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외벽에 불연재 사용 의무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월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의 외벽 마감재로 당초 홍보했던 인화성이 약한 독일산이 아니라 인화성이 강한 국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 인화성 마감재는 아파트 4층에서 발생한 불이 불과 20여분만에 38층 꼭대기까지 번지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지만 건축법상 외벽 마감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 류재용 건축정책관은 10월11일 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우신골든스위트의 외벽 알루미늄 패널에 대해 “건축 당시 독일산 수입이 막혀 국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분양홍보 책자에 소개돼 당초 사용하려던 독일산은 인화성이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실제 사용된 국산은 접착제가 본드처럼 인화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면서 “독일산을 사용했다면 불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재용 정책관은 이에 따라 건물 외벽의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령 개정 전에도 다양한 강제수단을 통해 가연성 외벽 마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우신골든스위트와 같은 외벽 마감재가 사용된 기존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제·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12>